



# 하루에 하나



2026.6.24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원/달러 환율

1,539.10원 (+2.10원)

### KOSPI

8,203.84 (-910.71, -9.99%)

### KOSDAQ

891.52(-76.88, -7.94%)

### 국고채 10년 금리

4.171(-0.024%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2번의 J사태가 시장에 던져준 과제 [김상만]
실전퀀트	현 시점, 냉정한 팩트 체크 [이경수]
자산배분의 창(窓)	유럽의 긴축 (가장 먼저 마주한 정책적 시험대) [이영주]
자산배분의 창(窓)	영국 정치의 전환점, 시장은 무엇보다도 재정을 본다 [이영주]
Global Macro Alert	그린스펀을 통해 보는 케빈 워시, 추구하는 바와 차이점 [전규연]
주간 강테마	MLCC 공급 Red Red, 가격 Green Green [강윤형]

### 기업분석

오리온	2Q26 Pre: 계절적 비수기 불구하고 견조한 탑라인 지속 [심은주]
삼익제약	IPO 주관사 업데이트: 5년 내 매출 2배 성장의 목표 [김선아]
DL이앤씨	사우디 과제에 대한 과도한 우려 [김승준]
오픈놀	IPO 주관사 업데이트: 디지털 사이니지·통합 플랫폼 [권태우]
ISC	테스트 소켓도 LTA 체결 중 [김민경]

### 글로벌리서치

아르셀로미탈	주요국 철강가격 상승으로 영업실적 개선 진행 중! [박성봉]
--------	-----------------------------------

###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오리온

2026년 6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 Credit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CrediVille

## 2번의 J사태가 시장에 던져준 과제

### 부정적 전염효과 차단이 급선무

4월 말 제이글로벌리츠(이하 소문자 J)의 기업구조조정 여파가 채 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주 중앙미디어그룹(이하 대문자 J)의 주요계열사들이 기업회생 및 워크아웃 신청에 들어감에 따라 신용 채권시장에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전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연관성이 높은 영역에서 느끼는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번 이슈들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해당 기업에 있겠지만 작년 말 이후의 금융 시장 흐름 또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들 수 있는 변수는 작년 말 이후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금리 상승에 따라 발행시장이 위축되었고 이자비용 부담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나 하위등급 기업들의 경우 과거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고금리 메리트를 기반으로 개인들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수급적인 이점을 누려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즉, 주식시장 활황 등에 따른 머니무브 현상으로 인해 채권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채권(을 포함한 인컴형자산)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4월 말 J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이전까지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J이슈가 불거진 직후 여타 하위등급 기업들에의 부정적 여파는 J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J의 채권들은 타 채권과 (부정적으로)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급기야 구조조정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그렇다면 J와 J의 채권 간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개인 및 일반법인의 투자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게다가 두개의 채권을 동시에 보유한 투자자들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채권자들은 또 다른 하위등급 채권들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J의 구조조정에서 시작된 부정적 전염효과가 J를 거쳐 점차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기업들의 신용이슈가 불거지는 경로는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이 유동성위험으로 번지고 급기야 차환에 실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외생적 변수(금리상승, 머니무브 등) 발생에 따라 거시적 차환위험이 먼저 부각된 이후 순차적으로 기업들의 신용위험을 자극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개별기업 차환의 대응이 아닌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금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위등급(특히 BBB급)채권들의 시장 기반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투기등급을 포함한) 다양한 등급 스펙트럼을 보유한 글로벌 신용평가등급 분포와 달리 국내 신용등급 분포는 투자적격등급 이상 위주의 편중된 분포구조(공모채권 기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위 꼬마무라코 할 수 있는 BBB급 이하 등급기업들의 발행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금번 J사태로 인해 기반은 추가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신용 채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른바 '뉴페이스'들이 시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장에 활발히 진입하면서 시장의 하부구조를 견고하게 해주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생태계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 신용보증기관들 주관하에 운용되고 있는 Primary CBO(이하 P-CBO)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 국내에서 발행된 P-CBO에 편입된 기업들의 등급 분포를 보면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비중은 11~14% 내외로 높지 않다(무등급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P-CBO의 원래 특징이다). 하지만 등급을 보유한 절대기업 수로 따지면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는 64개(BBB등급은 53개: '25년 기준)에 달한다. 국내 전체 회사채 발행등급 기업 수가 266개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이다. 물론 그중에는 P-CBO 외에 공모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P-CBO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P-CBO 자체도 계속 필요하겠지만 참여기업 중 투자적격등급에 해당하는 유망 중견기업들이 공모발행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응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지난주 사태의 여파로 전반적인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크레딧 채권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하위등급과 관련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술한 바처럼 채권 보유자들이 상당 부분 겹쳐있기 때문에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큰 타격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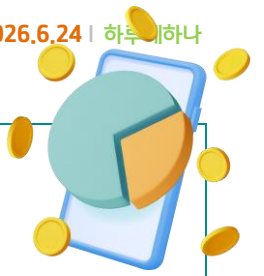
다만, 가격 측면에서 당분간 위험관리는 여전히 필요하다. 분기말이기도 하고 단기금리 상승 등 유동성 여건이 비우호적이다. 단기적으로 시장흐름을 되돌릴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 현 시점, 냉정한 팩트 체크

실전 퀀트 | 2026.06.24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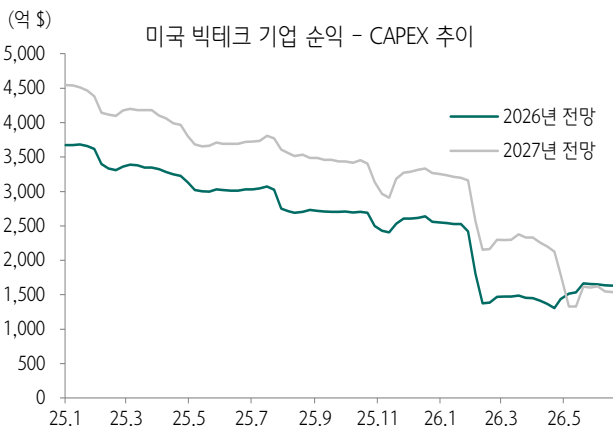


## 미국 현금흐름과 코스피 개인 수급, 이익 등 점검

### 개인 수급 둔화 등 주변 환경 객관적인 팩트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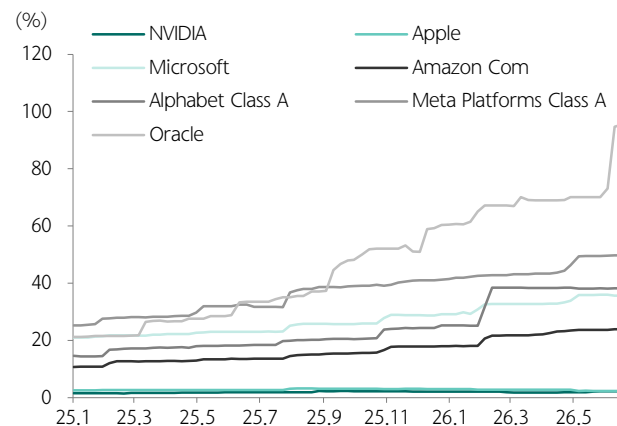
- 미국 M7의 순이익 - CAPEX는 '0'에 근접, 다만 5월부터 하락세 둔화(순익 전망치 상향 영향), M7의 CAPEX/매출 수치 역시 급증 중, 이는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지속성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대목
- 결국, M7 실적 추정치는 상향 중이지만 밸류에이션은 대체로 하락세. 다만, 애플과 마이크로 등은 PER 상승 중
  1. AI 사업에 대한 부정적 스탠스 반영 중(AI 투자에 소극적인 애플 PER 상승, 1년 선행 PER 31.5배)
  2. 금리 상승으로 인한 CAPEX 부담 반영, 금리와 AI 소프트웨어(IGV ETF)대비 반도체 하드웨어(SOX ETF)의 상대강도와 연관
  3. 빅테크의 CDS 추이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
- 코스피의 개인 지수 상승 기여도(지수 상승시 코스피 시총대비 개인순매수 금액으로 계산) 6월들어 크게 둔화, 코스피 관련 ETF의 설정액도 일시적으로 Peak 관찰
- 5월 개인 수급 유입 폭증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 종료로 4~5월 부동산 거래 증가(계약금 시기) 영향. 다만, 이에 따른 잔금일은 대체로 7~8월이며 시기적으로 개인 수급 여력 남아있는 상황(개인 수급 Peak로 보기 어려워)
- 한국 코스피 주가는 분기별 한국 기업이익 증가율과 명확한 상관성 시현, 2분기 OP 230조원으로 YoY 증가율은 +216%, 3분기에는 267조원(YoY +198%),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3분기 컨센서스 추가 상향 필요(2분기 반도체 실적이 중요)
-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3.18) 서프라이즈 후 이익은 상향되고 주가는 급락했던(2주간 -28%) 경험, 하지만 4월부터 주가는 반등. 미국 투자자들은 반도체 호실적을 셀온으로 대응하는 경향 존재, 다가오는 24일 마이크론 실적 직후 변동성 유의

도표 1. 미국 M7의 순이익 - CAPEX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2. 미국 빅테크 CAPEX/매출 추이('26년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하나증권

2026년 6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 Asset Allocation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자산배분의 창(窓)

## 유럽의 긴축 (가장 먼저 마주한 정책적 시험대)

### 유럽의 긴축, 계획에 없던 선택

연초만 해도 유럽의 통화정책 경로는 비교적 명확해 보였다. 유로존과 영국 모두 저성장과 물가 둔화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 또는 장기 동결이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였다. 실제로 유로존 물가는 ECB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었고, 영국 역시 임금 상승률과 서비스 물가 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확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높아졌고, ECB는 6월 회의에서 예금금리를 2.0%에서 2.25%로 인상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기존의 완화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 물가는 다시 오르고, 성장은 다시 둔화되고

문제는 이번 금리 인상이 유럽 경제의 체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로존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고, 최근 PMI는 4월과 5월 모두 생산 위축을 시사했다. 영국도 실업률은 4.9%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 관련 업종 고용은 연을 기준 3.5%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임금 상승률은 1년 전 5.2%에서 3% 아래로 낮아졌다.

영국 중앙은행이 주목하는 것은 물가 수준 자체보다 물가 상승의 지속성이다. 지난해 식품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고용주 부담 증가에도 물가의 2차 파급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 지표 역시 기업들이 가격 인상보다 신규 채용 축소를 통해 비용 부담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로존 역시 기업들의 가격 인상 압력은 높아졌지만, PMI가 보여주는 수요와 생산 흐름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 보험성 인상인가, 새로운 긴축의 시작인가

현재 시장의 관심은 ECB의 금리 인상을 새로운 긴축 사이클의 출발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보험성 조치로 봐야 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ECB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영국 중앙은행 역시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추가 인상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황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팬데믹 이후 누적된 저축과 강한 노동시장이 물가 상승을 임금과 서비스 가격으로 빠르게 확산시켰다. 반면 현재는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구인 수요와 고용 증가세도 약해지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 역시 당시 정점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재정 여력도 제한적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 유럽이 먼저 마주한 정책적 시험대

유럽은 이번 에너지 충격의 비용을 가장 먼저 떠안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긴축이 성장 둔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중앙은행들은 다시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견뎌내고 물가 압력이 점차 완화된다면, 이번 금리 인상은 일시적인 보험성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결국 유럽의 경험은 다른 주요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지정학적 충격으로 발생한 공급 측 물가 상승에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6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 Asset Allocation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자산배분의 창(窓)

## 영국 정치의 전환점, 시장은 무엇보다도 재정을 본다

## 스타머의 퇴진, 영국 정치는 다시 전환점에 섰다

2026년 6월 22일 사임을 발표한 키어 스타머 (Keir Starmer)는 2024년 총선 압승 이후 노동당을 중도 실용주의 정당으로 재편해왔다. 재정건전성과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며 과거 노동당 좌파 노선과 거리를 두었고, 집권 초기에는 금융시장으로부터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와 생활비 부담, NHS 대기시간 문제, 이민 정책 논란 등이 누적되면서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였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지방선거 참패와 노동당 내부 반발이 겹치며 지도부 교체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치적 입지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특히, 미국 대사로 임명된 Peter Mandelson을 둘러싼 논란과 과거 Jeffrey Epstein 관련 이슈의 재조명 역시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중시켰다. 결국 스타머의 퇴진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정치적 리더십 약화와 당내 통제력 상실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 번햄의 부상, 노동당은 얼마나 좌측으로 이동할 것인가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앤디 번햄 (Andy Burnham)을 두고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향후 노동당의 정책 방향 변화 여부다. 일부 영국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노동당의 좌클릭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번햄은 스타머보다 노동당 전통 지지층과 노조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지만, 2015~2020년 \*제레미 코빈 (Jeremy Corbyn) 체제 노동당이 제시했던 급진적 재분배나 국유화 노선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도표 1 참고]

번햄의 정치적 기반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있으며, 교통·주택·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개선을 강조해 왔다. 다만 스타머 체제보다 공공투자와 지역 개발 정책에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예상되고 있다. 북부 지역 재생, 교통 인프라 확충, 주택 공급 확대 등은 번햄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의제들이다. 다행히 대규모 증세나 국유화 보다는 성장을 제고를 위한 선택적 재정 확대를 보일 가능성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시장은 "번햄이 코빈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Reform UK의 부상 속에서 노동당이 전통 지지층을 얼마나 다시 흡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타머 체제보다 어느 정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 시장의 시선, 인물보다 재정팀에 집중

흥미로운 점은 스타머 사임 이후에도 gilt (Gilt) 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이 번햄 개인보다 향후 재정정책 운영 방식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일 것이다. ① 재정 준칙(Fiscal Rules) 유지 여부, ② 추가 국채 발행 규모, ③ 차기 재무장관 인선이다.

실제 영국 정치에서는 총리보다 재무장관이 시장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은 번햄의 당선 여부보다 그가 누구에게 재정을 맡길 것인지에 더욱 민감하게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인사가 재무장관에 새로 임명된다면 시장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반대로 차입 확대와 적극적 재정지출을 선호하는 인사가 기용될 경우 gilt 금리와 파운드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정치적 전환점보다 재정에 대한 신뢰

현재 영국 경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정부부채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로 BOE의 긴축 전환 또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정책 여건은 더욱 제약적이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경기 회복세는 약하고 생산성 개선 역시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영국 채권시장은 정치적 성향보다 재정 신뢰를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2년 Liz Truss 정부 당시 미니 예산 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당시 대규모 감세 정책이 충분한 자원 조달 계획 없이 발표되자 gilt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으며, 영국 연기금 시장까지 흔들리면서 영란은행이 긴급 개입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시장은 재정준칙을 중시해 온 현 재무장관 Rachel Reeves의 역할을 높게 평가해 왔다. 리브스는 스타머 정부 출범 이후 노동당 내부의 지출 확대 요구와 성장 압박 속에서도 재정규율을 강조하며 시장 신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결국 번햄 체제에서 시장의 관심은 정치적 수사보다 경제팀 구성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스타머 이후의 영국 정치 변화는 새로운 이념 경쟁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은 정치적 구호보다 트러스 사태 이후 더욱 중요해진 재정 신뢰를 유지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쏠려 있다.

2026년 6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 Economy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Global Macro Alert

## 그린스펀을 통해 보는 케빈 워시, 추구하는 바와 차이점

### 케빈 워시가 추구하는 연준은 어떠한 모습인가

연준의 수장이 바뀌면서 FOMC 회의 구조도 파격적으로 바꿨다. 성명서 글자수가 4월 341자에서 6월 132자로 대폭 줄어들었고, 기자회견 시간도 1시간 가량에서 42분으로 짧아졌다. “기자회견은 유용하지만,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말을 해야한다”고 언급했지만, 이틀에 걸쳐 FOMC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과 연준위원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대변하지 않았다. 케빈 워시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통화정책 경로가 아니라 5개의 TF 구성 계획이었을 것이다.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케빈 워시가 추구하는 연준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의 발언들과 향년 100세로 6/22 별세한 케빈 워시의 롤모델 앨런 그린스펀의 발자취를 통해 방향성을 추론해볼 필요성이 있다.

### 케빈 워시와 앨런 그린스펀의 공통점: 소통 제한, 비전통적 지표 활용, 생산성 기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사용해 시장 반응을 조절하며 소통을 제한했다. 6월 FOMC에서 케빈 워시가 보여준 소통 방식과 유사하다. 데이터 중심적인 접근법 사용과 데이터 범주 확장도 공통적이다. 그린스펀은 기존 경제지표 외에 골프장 이용률, 남성용 속옷 판매량 등 비전통적인 지표들을 활용해 경기의 미묘한 변화를 읽으려 했다. 케빈 워시는 현재 중앙은행과 정부가 소비하는 데이터들이 구식 설문 방법론에서 비롯되어 실제 경제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고 데이터 관련 TF를 구성해 민간 부문의 실시간 데이터 확보, 공식 통계 개혁, 분석 방법 정교화 등을 꾀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케빈 워시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들을 채용한다면 FOMC 회의 직전 연준 직원들의 경기 평가는 완화적으로 변할 수 있다.

(< Appendix: FOMC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참조)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도 동일하다. 1990년대 초 컴퓨터와 인터넷 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IT 투자가 확대됐으나, 생산성 증가는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린스펀은 보이지 않는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으며 주식시장 급등을 합리적 과열이라고 주장했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케빈 워시도 시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물가가 안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시가 당장 수요 측에 더 기여하는지 공급 측에 더 기여하는지 질문 받자 워시는 “수요는 공급보다 측정하기 쉽다”며 생산성 향상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속내를 살짝 드러냈다.



Economist 권규연 kychun@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 그린스펀 당시와는 다른 2026년. 탈세계화, 정치적 성향 등 고려할 필요

1990년대의 경우, 생산성 증가 기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주체들이 생산성 증가를 예상하고 미래의 수요를 앞당겨오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할 점은, 1990년대는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낮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시기라는 점이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국면이다. 트럼프 정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저가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도 하반기 내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워시와 그린스펀은 정치 성향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그린스펀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공화당) 때 연준의장으로 임명돼 H.W.부시(공화당), 클린턴(민주당), W.부시(공화당) 행정부에서 모두 의장을 역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워시는 트럼프의 측근이며, TF 구성의 목적도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를 바꿔 금리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 연준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심화될 수 있다. 워시가 연준 개혁 과정 중 내부 의견을 통일할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2026년 6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 Equity

## 주간 강테마(신고가로 보는 글로벌 테마)

## MLCC 공급 Red Red, 가격 Green Green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주간 테마 리뷰: 메모리/스토리지\_부족한 만큼 가격이 오른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매크로 불확실성을 소화하면서 다시 AI 주도주에 집중했다. 그중에서도 메모리/스토리지는 팀 쿡 CEO의 메모리 대란 발언, HDD 쇼티지 등으로 AI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성과를 기록했다. 주간 기준 평균 신고가 빈도수 3.1회, 평균 수익률 +20.8%로 AI 테마 평균을 상회하며 핵심 테마로 부각됐다.

DRAM, NAND, HDD 모두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테마 내에서 Kioxia(+33.7%), Western Digital(+32.5%), SK하이닉스(+28.5%) 등이 20% 이상 상승하며 가장 아웃퍼폼한 주가 흐름을 기록했다. Kioxia는 낸드 가격 상승과 LTA 확대 기대감, Western Digital은 HDD 투트랙 전략과 높은 AI-클라우드 매출 노출도가 부각됐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향 12단 HBM4E 샘플 출하 소식으로 2027년 HBM4E 양산 물량 선점 기대감이 반영됐다.

## 주간 테마 전망: MLCC\_전자산업의 쌀에서 AI 시대의 금쌀로

가격 인상 기대감이 유효한 MLCC를 주요 테마로 제시한다. AI 서버용 MLCC는 범용 제품보다 사양이 높아 가격이 높고, 투입량이 일반 서버 2,000개에서 AI 서버는 25,000개로 증가하며 P, Q가 증가한다. Murata 나카지마 노리오 사장은 현재 MLCC 수요가 공급 능력의 2배 수준이라 언급하며 강력한 수요 분위기를 재확인했다.

AI발 수요 증가가 범용 MLCC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 AI 서버용 고사양 제품 중심으로 생산이 집중되자 범용 제품 생산 여력이 감소하면서 Taiyo Yuden, Walsin 등 기업들이 소비자용(범용) MLCC 가격을 각각 +6~13%, +5~15% 인상했다.

강력한 수요에 Murata, 삼성전기 등 1티어 기업들의 가동률이 90% 이상 상회하고 있어 증설을 통해 초과 수요를 대응하고 있다. 2티어 기업인 Taiyo Yuden은 1QCY26 기준 85%를 하회하는 가동률을 기록했으나 2분기 90%, 3분기 95% 수준을 전망하면서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Murata의 800억엔, 삼성전기 750억원 투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증설 기간이 약 12~18개월 이상 소요돼 공급 부족은 2027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AI발 수요 증가, 고사양 AI 서버용 제품 중심의 생산능력 재배분, 제한적인 물량 증설 속도를 고려하면 MLCC는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테마로 판단한다.



Analyst 강윤형 kangyh@hanafn.com

2026년 6월 24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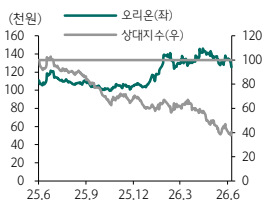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220,000원  
현재주가(6.23) 125,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203.84
52주 최고/최저(원)	146,000/99,300
시가총액(십억원)	4,961.8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39,528.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4.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5
외국인지분율(%)	38.48
주요주주 지분율(%)	
오리온홀딩스 외 9인	43.81
국민연금공단	9.1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745.0	3,998.0
영업이익(십억원)	650.6	704.3
순이익(십억원)	490.3	535.7
EPS(원)	12,238	13,386
BPS(원)	104,081	113,017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104.3	3,332.4	3,747.3	4,057.8
영업이익	543.6	558.3	661.0	740.0
세전이익	692.2	546.6	697.1	780.1
순이익	524.6	382.7	497.1	568.1
EPS	13,269	9,680	12,574	14,372
증감율	39.28	(27.05)	29.90	14.30
PER	7.72	10.92	10.35	9.05
PBR	1.17	1.10	1.23	1.12
EV/EBITDA	4.37	4.15	4.77	4.03
ROE	16.57	10.51	12.46	12.99
BPS	87,814	96,349	105,442	115,816
DPS	2,500	3,500	4,000	4,4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오리온 (271560)****2Q26 Pre: 계절적 비수기 불구하고 견조한 탑라인 지속****2Q26 Pre: 시장 기대 부합 전망**

2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8,643억원(YoY 11.2%), 1,390억원(YoY 14.4%)으로 추정한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4~5월 누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037억원(YoY 12.9%), 936억원(YoY 6.1%)을 시현했다. 4~5월 누계 국가별 매출 성장률은 각각 국내 YoY 0.1%/ 중국 YoY 21.9%/ 베트남 13.9%/ 러시아 24.5%를 기록했다. 로컬 통화 기준 성장률은 각각 중국 YoY 10%/ 베트남 YoY 10%/ 러시아 YoY 9% 추산된다.

① 국내는 편의점, 균일가 매장 및 이커머스 채널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통처 납품 제한 이슈가 지속되었다. 매출 채권 이슈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하반기부터 이슈는 점진적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입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비용 상승 기인해 4~5월 누계 손익은 YoY -16.3% 감소했다. ② 중국은 간식점 등 고성장 채널을 바탕으로 5월에도 견조한 성장(로컬 7% 추산)을 이어갔다. 매출 고성장 기인해 4~5월 누계 손익도 YoY 19.8% 증가했다. Top tier인 밍밍현망 및 완천그룹 향 전용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③ 베트남은 신제품 및 월드컵 시즌 제품 출시 효과로 YoY 두 자리 수 매출 성장을 시현했다. 다만, 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및 유틸리티 비용 상승으로 4~5월 누계 손익은 YoY Flat을 시현했다. 5월 기준으로 중동 향 수출이 일부 재개된 가운데, 하반기 갈수록 유틸리티 등 원가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④ 러시아는 주요 유통사인 X5의 최저가 할인 정책에 대응에도 불구하고 4~5월 누계 로컬 통화 기준 9% 매출 성장을 시현했다. 쇼트닝 등 주요 원가 하락 기인해 원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4~5월 누계 손익은 YoY 54.3% 큰 폭 증가했다.

**달라진 '중국' 체력, 연중 호실적 이어질 것**

오리온의 올해 실적 개선 Key는 중국이다. 중국은 올해 매출 1.4조원을 상회하여 역사적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한다. 약 10년 만에 두 자리 수 탑라인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가 고무적이다. '간식 채널'은 '가성비'를 앞세우면서 코로나 이후 급성장 중이다. 하반기도 간식 채널 주요 Player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시, 올해~내년 간식 채널 점포 수 확장은 유효해 보인다.

**호실적 + 배당 확대**

중국 및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전쟁 기인한 부정적 영향(유틸리티, 부자재 등 비용 상승)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4~5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간식 채널을 중심으로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위안화 강세도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섹터 내 단기 실적 모멘텀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한다. 올해 Top Pick 관점을 재차 유지한다.

2026년 6월 2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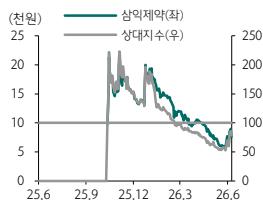
현재주가(6.23) 7,5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91.52
52주 최고/최저(원)	21,300/5,670
시가총액(십억원)	75.6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0,007.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89.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8
외국인지분율(%)	2.13
주요주주 지분율(%)	
이총합 외 14인	58.1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영업이익(십억원)		
순이익(십억원)		
EPS(원)		
BPS(원)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5.9	60.0	66.5	75.1
영업이익	3.7	3.3	3.3	3.8
세전이익	4.4	0.0	4.3	4.6
순이익	3.5	(0.8)	3.7	3.6
EPS	391	(82)	374	360
증감율	18.84	적전	흑전	(3.74)
PER	0.00	(170.37)	23.96	24.89
PBR	0.00	1.86	1.24	1.19
EV/EBITDA	(2.55)	21.29	12.84	11.42
ROE	7.02	(1.25)	5.18	4.87
BPS	5,665	7,503	7,241	7,561
DPS	31	40	40	4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 삼익제약 (014950)

## IPO 주관사 업데이트: 5년 내 매출 2배 성장이 목표

### 전문의약품 및 CMO가 주요 사업, 자회사 '팜베이'로 의약품 물류 사업도 영위 중

동사는 1Q26 연결기준 매출액 155억원(YoY+10.4%), 영업이익 9.3억원(YoY-8.5%, OPM6%)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1Q26 기준 전문의약품을 위주로 한 제품 매출이 86.0%, CMO 매출 11.4%로 이 두 사업이 주요 매출처이다. 동사가 취급하는 의약품 '25년말 기준 총 117개 품목으로, 1Q26 주요 매출에서 순환기용제(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제)가 46.2%, 당뇨병용제가 11.7%를 차지했다. CMO의 경우, 현재 44개 거래처와 당뇨병용제, 소화기용제, 진해거담제, 순환기용제, 기타처방 등 총 32개 품목 거래를 하고 있다. 특히 염산메트포르민 대량 생산, 이층정 기술 적용의 차별성, 시설 확충 등을 통해 CMO 매출의 외형과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동사는 또한 의약품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팜베이'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팜베이를 통해 우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부합하는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기존 3자 물류업체에 지급하던 보관·배송 비용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익성 개선과 밸류체인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1Q27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개량신약,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기기 등 R&D 기술력 확보 노력 중

동사는 3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치료제 중심으로 다양한 치료영역의 전문의약품 개발 중이고, 천연물 유래 신약 및 저분자 신약후보물질 탐색, 개량신약, 퍼스트 제네릭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또한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제조 플랫폼 기술인 'UniSphero'를 기반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SLIM Project). 주요 파이프라인은 SLIM2401 (류마티스관절염/원형탈모 치료제)로써, 기존 매일 복용하는 경구제인 '바리시티닙(JAK 억제제)'을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주사제로 전환한 제형이다. 바리시티닙은 난용성 약물이라 미립구 제조 시 봉입률이 낮은 것이 기술적 난제인데, 약물 분자를 고리 모양 구조(Macrocydic ring) 내부에 가두는 방식으로 봉입률을 높였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2H26 내 비임상 약동학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SLIM2402 (항암. 면역보조치료제), SLIM2403 (비만치료제)도 개발 중이다.

### 2030년까지 매출 1300억원, 영업이익 110억원 달성 목표

동사는 올해 1월 중장기 비전 'Re-Leap 2030'을 선포하여, '25년 매출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 비전은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R&D 기술력 확보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력을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1) 영업대행(CSO)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여 영업 부문을 고도화 하고, 2) 혁신적 고혈압 복합제 신약을 발매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 3) 제2의 '글루렘 서방정'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 품목을 개발, 2층정 및 난용성 제제 등 특수 제제 기술력으로 CMO 수주량을 증대시키고, 4)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5) '팜베이'로 물류 효율성 극대화 및 동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2026년 6월 24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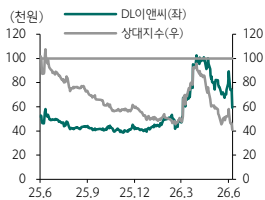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20,000원  
현재주가(6.23) 59,1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203.84
52주 최고/최저(원)	102,500/38,700
시가총액(십억원)	2,286.8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38,693.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40.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6.7
외국인지분율(%)	20.47
주요주주 지분율(%)	
DL 외 7인	24.82
국민연금공단	10.1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983.3	7,375.2
영업이익(십억원)	505.4	563.6
순이익(십억원)	421.9	435.9
EPS(원)	9,798	10,120
BPS(원)	134,975	144,324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318.4	7,402.4	6,481.8	6,551.6
영업이익	270.9	387.0	486.7	472.8
세전이익	353.9	117.2	631.6	512.9
순이익	229.2	370.2	462.0	369.2
EPS	5,348	8,625	10,764	8,602
증감율	22.18	61.28	24.80	(20.09)
PER	6.01	4.77	6.87	8.60
PBR	0.28	0.33	0.56	0.52
EV/EBITDA	0.96	1.50	4.96	4.86
ROE	4.77	7.34	8.47	6.33
BPS	113,286	123,370	133,269	141,004
DPS	540	890	890	89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DL이앤씨 (375500)****사우디 과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6/22 사우디 과세당국, DL이앤씨에 법인세 추징금 8,533억원 부과**

6/22 DL이앤씨가 공시를 통해,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33억원의 법인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06~2019년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EP(설계/조달)에 대해, 현지(사우디) 현장에서 해당 용역이 수행되었다고 일방적으로 간주하여 본세 4,392억원과 가산세 4,141억원을 부과했다.

**과세의 적정성 논란: 1)계약상 구분, 2)시효기한 소멸, 3)이중과세**

이번 법인세 추징 과세 적정성 논란은 세 가지 부분에 있다. 첫 번째는 본사에서 수행한 업무(EP)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가이다. 통상 사우디 발주처와 계약 시 현지부분(대부분 시공)과 본사부분(대부분 설계와 조달)을 구분하여 체결하고, 이에 맞게 발생한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또한 DL이앤씨의 사우디 현지 법인도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아왔고, 조세 불복 등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이 그동안 충분히 다뤄졌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는 시효기간이다.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으로, 2006~201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 2006~2015년을 제외할 시 160억 원대 수준으로 세액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문제다. 본사부분의 법인세는 이미 한국 정부에 납부하였기에, 국가 간 과세권을 침해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DL이앤씨는 사우디 세법과 한국/사우디 간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불복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불복 절차 중 세액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불복 절차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므로, 그동안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20,000원 유지**

DL이앤씨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는 12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6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11.0배를 적용했다.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벤트로 주가가 15% 이상 하락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DL이앤씨의 주가 수준은 26년 추정치 기준 PER 5.8배까지 내려오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종전 이후 이란 등에서의 수주 기대감, 영국 엑스에너지(SMR) 파트너십, 국내 데이터센터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승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 다만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다. 이란과 미국간 종전이 확정된 후 매수를 적극 추천한다.

2026년 06월 24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6.23) 3,010원

## Key Data

KOSDAQ 지수 (pt)	891.52
52주 최고/최저(원)	5,670/2,230
시가총액(십억원)	21.9
시가총액비중(%)	0.00
발행주식수(천주)	9,98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75.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0
외국인지분율(%)	1.49
주요주주 지분율(%)	
권인택 외 2인	49.74

##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 Stock Price



##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6	25	51	88
영업이익	1	1	0	(3)
세전이익	(1)	1	0	(5)
순이익	(1)	1	1	(7)
EPS	(66)	153	137	(663)
증감율	N/A	폭전	(10.5)	적전
PER	0.0	73.2	43.6	(5.7)
PBR	0.0	2.9	1.4	1.1
EV/EBITDA	0.0	47.7	44.9	0.0
ROE	(2.7)	3.8	3.3	(18.8)
BPS	2,520	3,828	4,204	3,524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 오픈놀 (440320)

## IPO 주관사 업데이트: 디지털 사이니지·통합 플랫폼

## 커리어 플랫폼에서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으로

오픈놀은 2012년 설립된 커리어·채용 플랫폼 기업이다. 2023년 코스닥 상장 이후 시니어 HR 기업 '상상우리'와 응용 소프트웨어 업체 'CK인포', 2024년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기업 '현대아이티'를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교육·채용 플랫폼에 하드웨어 시공과 SW·SI 기능을 결합한 복합 사업 체제로 전환했고, 청소년부터 중장년·외국인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SEP)으로 도약하고 있다. 2025년 연결 매출은 883억원(+73.9% YoY)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디지털 사이니지(515억원), 플랫폼·기타(282억원), 응용 소프트웨어(86억원)로 구성된다.

## 직무 역량 기반 인재 매칭 서비스 '미니인턴' 수요 확대

국내 채용시장은 수시채용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6년 조사(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 대상)에서 응답 기업의 54.8%가 수시채용만 실시한다고 답했고,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는 직무 관련 업무경험(67.6%)이 꼽혔다. 직무능력은행제와 블라인드 채용 기조,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일자리 확대도 우호적 환경을 형성한다. 또한, 정부의 교육지원 예산과 AI 관련 예산이 2026년 각각 106조원, 10조원으로 확대되며 수요 기반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직무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은 실무 과제로 역량을 검증하는 미니인턴의 매칭 구조와 정확히 맞물린다. AI 도구 확산으로 경력직 채용이 늘고 미니인턴 기반 AX(인공지능 전환) 교육이 본격화한 점은, 플랫폼 부문의 외형 성장을 이끄는 구조적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현대아이티·CK인포 흡수합병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토탈솔루션 구축

현대아이티 인수 이후 디지털 사이니지가 그룹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현대아이티는 국내 전자출판 조달시장 2위 사업자로 미국·일본·호주 등 3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한다. 해당 부문 연결 매출은 현대아이티 실적의 온기 반영과 디지털 교과서·스마트 경로당 등 공공 수요에 힘입어 2025년 515억원까지 증가했다. 2025년 12월에는 종속회사 현대아이티가 SW 전문 계열사 CK인포를 흡수합병해, 하드웨어 시공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공급하는 턴키 체계를 완성했다. 이로써 중박 인력·비용을 통합해 고정비를 낮추는 동시에, 국제행사·공공기관의 대형 디스플레이 프로젝트에서 단독 수주 경쟁력을 확보했다.

## 통합 플랫폼 확장과 수익성 점진적 개선 기대

오픈놀은 미니인턴과 교육 현장·기업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연결해 AX 교육 콘텐츠를 공급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 커리어로드맵 서비스도 새로 선보였다. 3월에는 윈드드림·서울글로벌센터와 3자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커리어 설계' 영역에 진입했고, 외국인 정착·취업 지원 매출은 2024년 7억원에서 2025년 27억원으로 약 4배 늘며 신성장축으로 자리잡았다. 2025년 비현금성 비용과 파생상품 평가손실 등 약 100억원의 일회성 요인으로 영업·순손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다만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이 소폭 줄었음에도 영업이익이 10억원(+90% YoY)으로 급증했고, 수주잔고도 297억원(+98% YoY)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동사가 지난 4월 전망공시로 제시한 연 매출 1,000억원 달성에 비용 효율화와 합병 시너지가 더해지면, 연간 손익도 흑자 기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24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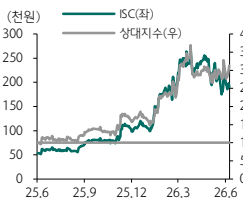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250,000원(상향)  
현재주가(6.23) 190,4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91.52
52주 최고/최저(원)	271,000/51,300
시가총액(십억원)	4,035.9
시가총액비중(%)	0.81
발행주식수(천주)	21,197.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36.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7.0
외국인지분율(%)	23.31
주요주주 지분율(%)	
SKC 외 1인	48.62
미래에셋자산운용 외 1인	8.3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12.8	412.0
영업이익(십억원)	101.9	141.3
순이익(십억원)	89.4	122.2
EPS(원)	4,205	5,747
BPS(원)	28,656	33,142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4.5	220.2	314.5	400.3
영업이익	44.8	60.1	105.4	147.0
세전이익	69.6	66.6	114.7	160.6
순이익	54.7	56.1	90.5	126.1
EPS	2,579	2,648	4,271	5,947
증감율	258.19	2.68	61.29	39.24
PER	27.96	41.96	46.41	33.33
PBR	2.83	4.25	6.67	5.69
EV/EBITDA	22.01	29.03	32.17	23.23
ROE	10.98	10.60	15.76	18.92
BPS	25,507	26,160	29,732	34,832
DPS	810	850	850	85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ISC (095340)****테스트 소켓도 LTA 체결 중****2Q26 Preview: 하반기 가파른 실적 성장 기대**

26년 1분기 매출 730억원(YoY +41%, QoQ +7%), 영업이익 219억원(YoY +60%, QoQ -7%, OPM 30%)을 기록할 전망이다. 장비 및 소재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GPU 및 서버 CPU 테스트 소켓 매출 확대가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연간 실적은 매출 3,145억원(YoY +43%), 영업이익 1,054억원(YoY +76%, OPM 33%)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신규 생산시설 가동과 함께 차세대 AI 가속기 테스트 소켓 공급이 본격화되며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차세대 AI 가속기향 테스트 소켓은 판가 상승 및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론 AI 수요 확대에 따라 서버 CPU 테스트 소켓 수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설 진행상황 업데이트**

ISC는 강한 테스트 소켓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설을 진행 중이다. 현재 테스트 소켓 생산 능력은 연간 매출액 기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27년 하반기까지 4,000억원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베트남 및 국내 생산시설 투자가 병행되고 있으며 26년 8월, 27년 1월 및 하반기에 걸쳐 순차적인 램프업이 예상된다. 이번 증설은 GPU 및 ASIC 고객사의 실장용 소켓 수요 증가와 고객사 전용라인 확보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복수의 고객사와 LTA 체결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칩의 고성능화와 테스트 요구사항 확대로 테스트 소켓의 기술 난이도 및 필요 수량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타이트한 공급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주가 25만원으로 상향**

ISC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7년 예상 EPS 6,200원에 Target PER 41.0배를 적용해 산출했으며 Target PER은 리노공업, Winway(대만)의 27년 예상 PER 평균값이다. [1]칩의 고성능화, 대면적화와 함께 테스트 요구사항 확대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구조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2]데이터센터 TCO 효율화를 위한 실장용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로 전방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아울러, [3]고객사 수요에 기반한 증설을 통해 중장기 성장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2026년 6월 24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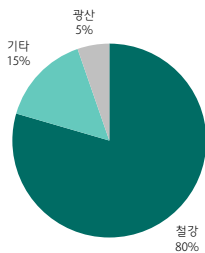
## 룩셈부르크

TP(컨센서스) 57.61 EUR  
CP(06.22) 55.50 EUR

## Key Data

국가	LUXEMBOURG
상장거래소	EN Amsterdam
산업 분류	소재
주요 영업	금속 & 채광
홈페이지	www.corporate.arcelormittal.com
시가총액(십억USD)	43.0
시가총액(조원)	75.7
52주최고/최저)	62.6/25.94
주요주주 지분율(%)	
LUMEN INVESTMENTS LTD	35.59
NUJAVAM INVESTMENTS SARL	8.2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3) 44.8 112.0
상대	(5.9) 29.9 92.8

## 매출구성



##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62,441	61,352	66,514	70,265
영업이익	3,310	3,628	4,974	6,725
순이익	1,339	3,152	3,637	5,167
EPS(USD)	2.1	2.9	4.7	6.7
EPS(YOY, %)	(40.2)	38.7	59.8	42.8
ROE(%)	2.6	6.1	6.5	8.6
PER(배)	13.7	11.1	13.5	9.4
PBR(배)	0.4	0.6	0.8	0.8
배당률(%)	1.8	1.3	1.0	1.1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 아르셀로미탈(MT. NA)

## 주요국 철강가격 상승으로 영업실적 개선 진행 중!

## 1Q26 미국과 유럽 중심의 철강 가격 상승과 기저효과로 1Q26 실적 개선

아르셀로미탈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54.6억달러(YoY +4.5%, QoQ +3.2%), 영업이익 7.5억달러(YoY -8.7%, QoQ +130.3%)를 기록했다. 전체 철강 출하량은 1,281만톤(YoY -5.8%, QoQ -1.2%)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철강 가격 반등에 힘입어 전체 ASP가 952달러/톤(YoY +11.5%, QoQ +6.0%)로 상승했다. 동시에 지난 분기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의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견조한 내수 수요를 바탕으로 봉형강과 판재 모두 판매량이 확대되면서 262만톤(YoY -0.7%, QoQ 5.2%)을 출하했고 유럽의 경우 1분기 탄소 국경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수입재가 감소하며 판재류 위주로 판매량이 711만톤(YoY -5.6%, QoQ +8.1%)까지 증가했고 ASP 또한 전분기대비 상승했다.

## 2Q26에도 주요국 철강 가격 상승으로 양호한 영업실적 전망

견조한 철강 수요와 수입재 감소 영향으로 2분기에도 북미 지역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부터 이어진 미국내 철강 가격 상승세를 고려할 때, 2분기 ASP 역시 추가 상승할 전망이다. 유럽은 CBAM 본격 적용과 7월 신규 저울관세할당(TRQ) 시행으로 수입재 감소세가 이어지며, 이에 따른 역내 철강 가격 상승도 기대된다. 브라질 또한 1분기부터 중국산 냉연도금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2분기 판매량 확대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글로벌 철강 가격 회복과 판매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2분기에도 양호한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 전략적 설비 투자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유럽에서는 7월부터 신규 TRQ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관세 수입 쿼터가 기존 대비 47% 축소된다. 특히 이번 TRQ 조건에는 'Melt and Pour' (유럽 내 용해 및 주조) 조건이 포함되어 우회 유입 차단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아르셀로미탈은 유희 고로를 재가동하여 유럽 내 생산량을 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유럽 내 전기로 기반의 저탄소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자 스페인 히혼에 전기로를 증설하고 있으며 2029년 시운전을 목표로 프랑스 덩케르크에 연산 200만톤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 중이다.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에서도 생산 능력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데 일본 제철과의 합작 법인인 AMNS는 인도 Hazira 제철소에 2027년까지 고로 2기를 증설하여 생산 능력을 연산 1,500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Andhra Pradesh 제철소를 신설해 인도 내 생산 능력을 연산 2,30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주가는 PBR 0.8배 수준으로 올해 예상 ROE 6.5% 감안 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 판단된다.

#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6/22	2,764,000	2,555,000	-7.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Q26 Review 매출액 52.6조원(YoY +198.0%), 영업이익 37.6조원(YoY +405.0%) 기록</li> <li>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li> </ul>
삼성물산 (028260.KS)	6/22	491,500	455,000	-7.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 수주 5조원·수주잔고 31.7조원으로 하이테크/데이터센터 중심 수주 모멘텀 지속</li> <li>원전/SMR 수주 추진, 태양광 파이프라인 19GW 및 2030년 미국 5GW 운영자산 목표</li> </ul>
오리온 (272260.KS)	6/22	134,000	125,500	-6.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li> <li>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li> </ul>

##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9.15%	+0.15%p	+69.12%	-4.9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생명 (032830.KS)	6/22	385,500	425,000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li> <li>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li> </ul>
신세계 (004170.KS)	6/22	695,000	672,000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li> <li>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li> </ul>
오리온 (272260.KS)	6/22	135,500	125,500	-7.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li> <li>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li> </ul>
삼성전기 (009220.KS)	5/26	1,340,000	1,990,000	48.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li> <li>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li> </ul>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555,000	148.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Q26 Review 매출액 52.6조원(YoY +198.0%), 영업이익 37.6조원(YoY +405.0%) 기록</li> <li>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li> </ul>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10,000	85.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li> <li>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li> </ul>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991,000	23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li> <li>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li> </ul>

##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7.21%	-25.24%p	+50.63%	-23.4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6,700	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li> <li>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li> </ul>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1,885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li> <li>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li> </ul>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3,865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li> <li>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li> </ul>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715	3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li> <li>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li> </ul>

##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68.91	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li> <li>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li> </ul>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80.72	신규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li> <li>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li> </ul>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33.25	신규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li> <li>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li> </ul>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89.55	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amp;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li> <li>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li> </ul>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21	6.22	6.23	6.24	6.25	6.26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로존 6월 소비자지대P (-18.0, 이전치 -1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6월 제조업 PMI (54.9, 이전치 54.5)</li> <li>일본 6월 서비스업 PMI (51.8, 이전치 50.0)</li> <li>유로권 6월 제조업 PMI (51.3, 이전치 51.6)</li> <li>유로권 6월 서비스업 PMI (48.9, 이전치 47.7)</li> <li>미국 6월 제조업 PMI (E 54.6, 이전치 55.1)</li> <li>미국 6월 서비스업 PMI (E 51.0, 이전치 5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5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6.2%)</li> <li>미국 5월 건축허가 F (E --, 이전치 -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5월 PCE (E 4.1%, 이전치 3.8%)</li> <li>미국 5월 근원 PCE (E 3.4%, 이전치 3.3%)</li> <li>미국 5월 내구재 주문 P (E -5.0%, 이전치 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5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4%)</li> <li>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E 50, 이전치 48.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24.7%)</li> </ul>
6.28	6.29	6.30	7.1	7.2	7.3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5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1.5%)</li> <li>중국 6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0.0%)</li> <li>중국 6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1%)</li> <li>일본 5월 실업률 (E --, 이전치 2.5%)</li> <li>미국 6월 CB 소비자지대 (E 93.5, 이전치 9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6월 수출 (E --, 이전치 53.2%)</li> <li>한국 6월 수입 (E --, 이전치 20.8%)</li> <li>미국 6월 ISM 지수 (E 54.0, 이전치 54.0)</li> <li>유로권 6월 CPI (E --, 이전치 3.2)</li> <li>유로권 6월 근원 CPI (E --, 이전치 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6월 CPI (E --, 이전치 3.1%)</li> <li>미국 6월 실업률 (E 4.3%, 이전치 4.3%)</li> <li>유로권 5월 실업률 (E --, 이전치 6.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6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8%)</li> <li>중국 6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4.4%)</li> </ul>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